

 국토교통부		<b>보 도 자 료</b>	
		배포일시	2017. 10. 13(금) / 총 9매(본문 2)
담당 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장 고관규, 사무관 복상규, 주무관 주현철</li> <li>• ☎ (044)201-3779, 3783</li> </ul>
보 도 일 시		2017년 10월 16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0. 15.(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 올해의 한옥대상에 ‘천연동 한옥’ …한옥 현대화 방안 제시 2017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 준공·계획·사진 부문 51개 작품 선정

- ‘한옥의 현대화’를 주제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주최한 제7회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에서,
- 기존 한옥의 가치와 시간의 흔적을 잘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주거 요구가 잘 반영된 ‘천연동 한옥’(준공부문)이 ‘올해의 한옥대상’으로 선정되었다.
  - 계획부문에서는 ‘해화당, 서운동 진달래길 게스트 하우스’가, 사진 부문에서는 ‘한옥의 토담’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국토교통부가 우리 전통 건축인 한옥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한편,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11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 3개 부문에 걸쳐 실시된 이번 공모전에서는 준공 부문 3개, 계획 부문 18개, 사진 부문 30개 등 총 51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 ‘올해의 한옥대상’으로 선정된 서울시 ‘천연동 한옥’은 협소한 대지 내에서 기존 한옥의 공간을 효과적으로 재배치하고, 주방·침실·욕실 등의 생활공간을 현대적으로 구현하여 한옥 개보수(리노베이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이다.

- 계획부문 대상 수상작인 ‘해화당, 서운동 진달래길 게스트하우스’는 현대 건축구조와 한식 목구조의 결합을 통해 한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고,
  - 사진부문 대상 수상작인 ‘한옥의 토담’은 한옥의 미를 부드러움과 적절한 빛의 대비를 통해 숨죽이듯 절제된 표현 방식으로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준공 부문과 계획 부문의 심사는 디자인과 시공 품질 등 한옥 건축물의 종합적 완성도와 함께 한옥의 현대화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사진 부문에서는 한옥의 정겨움을 품은 창조적 공간 표현을 심사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심사 위원장: 김성우).
- 특히 올해에는 300여 개의 출품작이 접수되었으며, 다양한 용도의 수준 높은 한옥 건축물과 계획안이 제시되어 우리 한옥이 과거에서 벗어나 현대적 삶의 공간으로 폭넓게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 한옥공모전 수상작품은 오는 10월 17일(화) 오후 2시 서울 남산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시상식과 함께 22일(일)까지 6일간 전시할 예정이다.
- 대상 수상작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현판(준공부문) 또는 상금(계획부문 1,000만원, 사진부문 400만원)이 주어진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본 공모전이 한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현대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한옥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17년 수상규모 》

구분		계획부문 상금 (작품수)	준공부문 상금 (작품수)	사진부문 상금 (작품수)
국토교통부장관상		1,000만원(1)	현 판(1)	400만원(1)
특별상(국건위원장상)		500만원(1)		일반인 200만원(1) 청소년 100만원(1)
본상	금상	500만원(1)	현 판(2)	일반인 150만원(1) 청소년 100만원(1)
	은상	300만원(2)	-	일반인 100만원(2) 청소년 50만원(2)
	동상	100만원(3)	-	일반인 50만원(2) 청소년 25만원(2)
입선		상장 및 기념품	-	상장 및 기념품

\* 본상 및 입선 중 계획부문 금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상, 기타는 건축 도시공간연구소장상 수여

붙임: 2017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주요 수상작 현황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복상규 사무관(☎ 044-201-37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준공부문

## ○ (올해의 한옥대상) 국토교통부장관상

구분	작품 전경	작품명 및 심사평
한옥 대상		<p><b>「천연동 한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한옥의 가치와 시간의 흔적을 잘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주거요구가 잘 반영된 작품으로 한옥 리노베이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할만함</li> <li>· 협소한 대지 내에서 기존 한옥의 공간을 효과적으로 재배치하고, 주방·침실·욕실 등의 생활공간을 현대적으로 완성도 있게 구현하였음</li> <li>· (위치)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로8길 6-7</li> </ul>

## ○ (올해의 한옥상)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상

구분	작품 전경	작품명 및 심사평
한 옥 상		<p><b>「성북동 한옥 리노베이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한옥에 모던한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접목한 상업시설로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도시풍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음</li> <li>· 무분별하게 증축되었던 기존 한옥의 본 모습은 살려내면서도 상업시설의 기능에 맞는 현대적인 재료와 세심한 내외장 계획을 구현한 인상적인 작품</li> <li>· (위치) 서울 성북구 성북로 16길 14</li> </ul>
한 옥 상		<p><b>「호원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 한옥의 실용성과 다양성을 보여주는 근린생활시설로 목조와 조적조를 합리적으로 결합하고, 다락을 포함한 중층의 내부공간을 실용적으로 구성하였음</li> <li>· (위치)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48번길 26</li> </ul>

## □ 계획부문

○ (대상) 국토교통부장관상 1

○ (본상) 특별상(국건위원장상) 1, 금상(LH사장상) 1, 은상 2, 동상 3

구분	계획안	작품명 및 심사평
대상 (장관상)		<p>▪ 대상</p> <p>「해화당, 서운동 진달래길 게스트하우스」 (청주대학교 이명희 외 3명)</p> <p>- 한옥밀집지역 가로경관에 대응하는 입면구성이 우수하며, 현대 건축구조와 한식목구조의 결합을 통해 한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실현가능성이 높은 작품임</p>
특별상 (국건위상)		<p>▪ 특별상</p> <p>「木工: Reproduction of Vernacular Architecture」 (서울대학교 박태홍)</p> <p>- 기둥·보 방식의 한식목구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한옥 1칸의 모듈을 적층·조합함으로써 자족적인 공동주거를 완성도 있게 구현하였음</p>



구분	계획안	작품명 및 심사평
<p>금상 (LH 사장상)</p>	 <p>감옥에서 한옥으로 Griffing: actually start community space</p>	<p>■ 금상</p> <p>「감옥에서 한옥으로」 (인하대학교 정찬우 외 3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옥의 공용공간을 현대적인 공동체 공간으로 발전시킨 계획안으로 현대주거공간에서 도외시되는 사람간의 접촉, 소통, 공유를 되찾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임</li> </ul>
<p>은상 (건도연 소장상)</p>	 <p>한옥 플랫폼: 다양한 삶의 그릇 PLATFORM 다양한 동선의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공동체적이고 참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p>	<p>■ 은상</p> <p>「한옥 플랫폼: 다양한 삶의 그릇」 (부산대학교 강민경 외 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 주거환경의 문제점인 획일성과 익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한옥이 갖는 가변성과 확장성을 도입함으로써 함께 누리는 공유공간을 효과적으로 구성하였음</li> </ul>
	 <p>더불어 지낸당</p>	<p>■ 은상</p> <p>「더불어 지낸당」 (명지대학교 오경하 외 3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식목구조와 현대 건축구조가 결합된 공동주거 계획으로서 단차를 둔 마당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입체적인 공간구성이 돋보임</li> </ul>





## □ 사진부문

### ○ 일반인 분야

- (대상) 국토교통부장관상 1

- (본상) 특별상(국건위원장상) 1, 금상1·은상2·동상2(건도연소장상)

수상	제목	사진
대상 (장관상)	한옥의 토담 (대구 남평문씨촌)	
	심사평	숨죽이듯 절제된 표현 의도는 품격이 있다. 부드러움과 적절한 빛의 대비를 자유롭게 다룰 줄 아는 수작이다.
특별상 (국건위)	한옥의 美 (경주 서출지, 논산 명재고택, 밀양 양재정)	
	심사평	각기 다른 세 곳 사진이 주는 이질적 느낌을 상쇄하는 서출지 사진은 고요한 바람이 이는 듯한 느낌을 준다.
금상	동궁과월지 (경주 동궁과월지)	
	심사평	낮과 밤으로 이어지는 영상의 아름다움을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 집중력과 끈기를 넘어서는 기대감을 준다.
은상	대문 (서울 인사동, 북촌)	
	심사평	휴대폰 사진인 듯해도 화질보다 앵글과 구성력이 발군. 보는 이의 눈이 갖는 결정력이 더욱 중요함을 보여준다.
	담쟁이 외 (김해 한옥체험관)	
	심사평	평범한 소재를 부각한 점이 특징. 우리도 가끔씩 주변적 이야기와 사물을 통해서 의미의 중심을 짐작해 본다.



수상	제목	사진
동상	고색문비(古色門扉) (안성 청룡사)	
	심사평	아름다움을 질문하는 듯 사색케 한다. 문득 불편함이 꼭 나쁘다할 수 없다는 사실에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한옥의 미 (밀양 표충사, 경주 종오정, 청도군 선암서원)	
	심사평	세 곳 사진 중 가장 돋보이는 선암서원. 부재의 육중함과 그 사이로 보이는 밖의 풍경이 숨죽이듯 자신을 드러낸다.

## ○ 청소년 분야

- (본상) 특별상(국건위원장상)1, 금상1·은상2·동상2(건도연소장상)

수상	제목	사진
특별상 (국건위)	정겨운 한옥 풍경 (경주 교동마을)	
	심사평	완결성이 돋보이며 목부재의 아름다운 요소와 문밖에까지 이끄는 시선의 확장이 발군이다.

수상	제목	사진	
금상	<b>따스한 한옥</b> (울산 동현)		
	심사평	두툼히 각진 기둥에서 성실한 대목수가 보이고 그 사이마다 외부가 엿보여 마치 한옥의 속살을 본 듯하다.	
은상	<b>붉은 광화문(좌)</b> (경복궁)  <b>경복궁의 밤(우)</b> (경복궁)		
	심사평	한순간의 광화문! 노을과 처마 현판 잡상 그리고 여기에 얹힌 수많은 이야기들... 그 모든 것이 아니어도 이 사진 자체로 족하다.	빛과 색의 쾌적함 그리고 구성력이 발군. 마치 푸른 하늘이 손짓하며 유혹하는 듯한 마력의 사진이다.
동상	<b>북촌의 여러한옥(좌)</b> (북촌)  <b>서원의 밤하늘(우)</b> (여주 기천서원)		
	심사평	화면의 분절, 그 속으로 멀리 보이는 지붕. 훈련된 눈으로 찾아낸 숨씨가 보이는 사진이다.	거침없는 사진적 기술의 구사. 북극성의 하늘과 검은 나무그루의 대비가 중후해 오히려 옛 서원이 무색해 보인다.